

# 4년제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비교연구 -C 대학을 사례로-

지계웅\*, 한진영\*\*

가톨릭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

## A Study on the Comparative study for the Four-year Collegia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 The case of C University

Ke-Yung, Ji\*, Jin-Young, Han\*\*

Dept. of Hotel Managemen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Dept. of Hotel Management,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등을 파악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복수전공 선택, 재학 중 직장경험, 어학연수 경험, 재학 중 진로설정, 취업목표 설정, 재학 중 일자리 탐색, 취업활동 참여, 직업관련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모든 항목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의지 고취가 필요하다. 둘째, 어학연수 기회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 활성화방향, 취업의지, 취업률 향상, 취업역량 강화

**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to prepare a plan for improving the employment rate of college students after identifying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grade level. Based on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frequency analysis was analyzed and in order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etween grade level, Cross-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all items show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by grade level in preparation for employment actions such as choice of a double major, workers' experience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in foreign countries, setting career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setting a goal for employment, seeking for employment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ctivity for researching job, education/training-related job, having an official license. Implications for activation direc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of college student by grade level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encouraging actively employment intention of the stude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for certification and expanding language training opportunities. Third, in the case of a local university, it is necessary for enhancing competency for employment through the promotion of basic education for students.

**Key Words** :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ctivation direction of employment preparation, Actively employment intention, Improvement for employment rate, Enhancement for employment competency

Received 1 May 2016, Revised 31 May 2016  
Accepted 20 June 2016, Published 28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Jin-Young, Han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Email: jyhan@ck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세계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18억 청년인구(15~29세 사이)중 5억명 이상이 실업상태로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미 취업상태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국4년제 대학평균 취업률은 64.5%정도이며 강원권은 평균55%정도로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20].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기회는 줄어들었고[4] 특히 '이태백', '이구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에 가깝고 대학 졸업자의 경우 4명당 1명꼴로 백수생활을 하는 등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공에 대한 공부가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로 그 의미가 축소되고 대학생활의 여유가 사라지는 현실에서[10] 취업난에 대처하기 위해 휴학이나 수업학기 연장 등의 수단을 통한 졸업연기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취업경쟁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19].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 및 괜찮은 일자리<sup>1)</sup>의 부족(수요요인),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공급요인), 근로자 자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정규직 및 경력직 선호(채용패턴의 변화), 구인 및 구직 과정에서의 문제(일자리 매칭) 등을 들 수 있다[1]. 불확실하고 급격한 시대변화에 잘 적응하는 혁신인재 중심의 새로운 인적자원개발이 전 세계의 추세이자,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인재양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인력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4].

이에 본 연구는 강원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인 C대학을 사례로 하여 재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등을 파악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효과적인 진로 및 취업지도를 도모하여 대학생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기회 확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지원 만족도 향상 및 대학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대졸 미취업 발생원인

대졸 미취업 발생원인은 공급측, 수요측, 공급-수요 연계원인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공급측 원인으로 매년 50만 명 내외의 대졸 이상 신규 취업희망자가 일시에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극심한 노동공급압박(labor supply pressure) 초래하며, 졸업생의 획일적 구직 패턴인 일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5]. 대졸자들은 주로 대기업·금융기관·공무원·공기업 등을 선호하여, 이들 기업에서의 신규인력 채용 시 일시에 대거 지원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임금·근무여건 격차 지속으로 여전한 취업 기피현상이 발생한다[2].

수요 측 원인으로는 기술진보 및 중성장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수요가 감소하는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심화로 고용흡수력(employment capacity)이 더욱 악화되고[15], 고용탄력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업의 채용패턴의 변화로 인한 신규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현상이 발생한다. 기업은 대규모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신규인력에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으로 변화하고 있다[16]. 또한 대졸자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주요 기업(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1].

공급-수요 연계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진학·직업선택을 위한 교육정보, 신규 대졸자의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데, 노동시장 진입 시 취업정보의 불충분으로 전공-직업 불일치가 발생한다. 구인기업은 구직자 역량 검증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구직청년은 스펙에 대한 기대로 실업상태가 지속되며, '구직난 속 구인난'이 만연해지고 있다[4]. 또한 기업은 숙련의 고도화와 다기능을 요구하고, 대졸자는 외형적 '스펙 쌓기'에 주력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기술 향상에 소홀한 실정이다[20].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로 청년 대졸자는 실업에 따른 기회비용이 높으며, 대학 졸업 후 직업세계로 나가자마자 실업에 직면하게 되면 타 학력계층보다 근로의욕 상실이 더욱 크다[6]. 실업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취업가능성(employability)이 저하되어 취업기회가 감소하고 실업이 장기화 될 경우 직장탐색활동의 강도가 낮아지고,

1) 일이 재미있고 복지혜택이 많은 직장

그에 따라 구직 기회를 상실한다[6].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어공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준비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9]. 그러나 취업여부와 함께 어떤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즉 ‘일자리의 질’, 즉 좋은 일자리(decent work)가 고려되어야 한다.

## 2.2 대학의 취업지원기구와 프로그램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고학력 진학률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학을 나올 만큼 고학력 국가이다. 이러한 고학력 인력관리 상황에서 대학취업지원 교육의 중요성 및 취업지원기구의 영향력은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취업지원기구는 대학 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서로 급부상하고 있다[8]. 대학의 취업지원기구는 국가의 고용 인프라 시스템에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고학력 고용경제의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운영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대학의 취업진로프로그램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그 운영시스템과 인프라가 확연히 달라져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들의 프로그램과 인프라는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인력 또한 비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원·이종구·이재춘(2011a)은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취업지원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취업지원부서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 취업지원부서의 접근성 강화, 친절한 서비스, 비 경영계열에도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참여기회 확대, 취업지원 인력 증원, 기업 전문가 및 인사담당자 초빙 프로그램 증대, 취업시스템상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의 빠른 업데이트와 구체성·정확성 확보, 취업 선배 연계 프로그램 도입, 저학년부서의 취업지원, 다양하고 정확한 취업정보 제공 등이다.

대학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배정이 적고,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참여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대졸자의 취

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학의 부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2014)의 취업지원관(10개)과 대학청년고용센터(50개)를 운영하는 전국 15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진로(취업) 지도 및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캠프 등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장견학과 선후배의 만남, 취업정보자료집 발간 등을 실시하는 대학은 절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t the colleges

Item	Service and program contents
The individual services -related Employment Support	Course (Employment) guidance or counseling
	Tenacity and aptitude or psychological tests
	Mentoring
	resume and biographical imitation interview
The program for providing information	Job fair
	Employment (businesses) presentation
	Field trips
	Meeting with elder and junior
	Publication of employment information data sheet
The structured career development program	One-time job Lecture (except for periodic lectures)
	operating courses(lectures)-related careers and employment
	operating courses-related employment
	Career camp
The services that linked industry with academia	Group career counseling and career development programs
	Internships and work experience
Follow-up And Etc	Identifying industry needs and developing available enterprise for employment
	Whether or not graduates history traceability (DB management, etc)
	External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Sour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moel.go.kr>

## 2.3 취업준비행동

청년들의 취업준비노력은 인적자본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인적자본이란 사람들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교육과 훈련의 양으로 개인이 축적한 인적자본의 정도가 많을수록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져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21].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란 대체적으로 잠재적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인 직업탐색활동을 포함한 희망 직업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영민·이수영·임정연(2013)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취업준비 행동변수로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여부, 취업활동 참여 여부, 졸업평점, 재학 중 직장 경험, 어학연수 경험, 취업목표 유무, 일자리 탐색,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유무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전공공부, 학점관리, 휴학, 어학연수, 영어성적, 자격취득, 인턴십, 파트타임 체형 등과 같은 취업사전관리,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수집, 직업전망 이해, 직업과 전공의 관련성 파악 등 취업정보 탐색, 시험준비, 취업 네트워킹, 설명회 참석, 원서제출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직활동 등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신입생들의 입학성적에 따라 서열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대학의 소재지는 대졸자들의 능력을 대변해주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9].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불분명하다[20]. 따라서 대학의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은 개인적,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학습자의 역량 형성을 교육과정의 핵심에 두으로써 체화된 지식, 경험적 지식을 강조한다[18]. 기존의 학문중심의 대학교육과정이 급변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

자격증의 취업성과 영향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불일치한 결과를 보였는데, 자격증이 취업이나 정규직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격증이 오히려 대기업의 정규직 취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많은 대학생들이 보다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과거에 비해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어공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취업준비시기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외국어 능력 역시 4년제 대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업준비 활동으로서 어학시험 응시, 어학학원 등록, 해외 어학연수 경험 등을 포함하

는데, 해외어학연수 경험이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영어과목 평균 학점이 높을수록 구직기간이 짧아지기도 하였다[11]. 또한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기업이 중요시하는 학점이나 영어 능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강원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인 C대학을 사례로 재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각 학년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3일-2014년 11월 21일까지 본 연구의 취지에 대한 교육을 시킨 각 학과별 조교들이 각 학과 사무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학년별(1학년 265명, 2학년 243명, 3학년 222명, 4학년 265명)로 1,000부를 할당 배포하여 총 1,000부를 수거해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성별, 학년, 거주지 등의 인구통계특성, 복수전공 여부, 직장경험(현장실습, 인턴십 등) 여부, 어학연수 경험여부, 재학중 진로설정 여부, 취업목표 설정 여부, 자격증 취득 유무 등의 취업준비행동을 선행연구[9][13][12]로부터 추출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WIN 20.0을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계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실증분석 결과

####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C대학 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68.7%, 여학생 31.3%로 나타나 남학생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24.7%, 2학년 25.5%, 3학년 23.3%, 4학년 25.5%로 각 학년별로 고른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거주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58.7%, 강원도 33.3%, 기타지역 8.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C대

학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edical tourism service participants

Item		N	%
Sex	Man	677	68.7
	Female	309	31.3
Grade	Freshman	243	24.7
	Sophomore	250	25.5
	Third grade	229	23.3
	Fourth grade	260	25.5
Residence	Metropolitan areas	580	58.7
	Kangwon-do	329	33.3
	Other areas	79	8.0

#### 4.2 학년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학년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복수전공, 재학 중 직장경험, 어학연수 경험, 재학중 진로설정, 취업목표 설정, 재학 중 일자리 탐색, 취업활동 참여, 직업관련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등을 조사하였다.

##### 4.2.1 복수전공 여부

복수전공 여부를 분석한 결과, '단수' 85.7%, '복수' 14.3%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복수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2학년부터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a double major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Singular	220 (22.5)	224 (22.9)	194 (19.8)	201 (20.5)	839 (85.7)	24.251	.000***
plural	0	47 (4.8)	34 (3.5)	59 (6.0)	140 (14.3)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 4.2.2 재학 중 직장경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 여부

재학 중 직장경험(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68.2%가 '있다', 31.8%가 '없다'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재학 중 직장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4>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workers' experience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132 (13.4)	159 (16.2)	171 (17.4)	208 (21.2)	670 (68.2)	45.159	.000***
No	111 (11.3)	91 (9.3)	58 (5.9)	52 (5.3)	312 (31.8)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 4.2.3 어학연수 경험 여부

어학연수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 17.1%, '없다' 82.9%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이 타 학년들에 비하여 '있다' 6.6%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Table 5>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in foreign countries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33 (3.4)	35 (3.6)	35 (3.6)	65 (6.6)	168 (17.1)	15.792	.001***
No	210 (21.4)	215 (21.9)	194 (19.8)	195 (19.9)	814 (82.9)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 4.2.4 재학 중 진로설정 여부

재학 중 진로설정 여부를 살펴보면, 진로설정 '예' 63.9%, '아니오' 36.1%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재학 중 1학년 14.3%, 2학년 16.0%, 3학년 15.9%, 4학년 17.7%로 4학년에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6>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Setting Career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140 (14.3)	157 (16.0)	156 (15.9)	173 (17.7)	626 (63.9)	6.950	.074*
No	103 (10.5)	92 (9.4)	73 (7.4)	86 (8.8)	354 (36.1)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4.2.5 취업목표 설정여부

취업목표 설정여부를 살펴보면, ‘예’ 68.9%, ‘아니오’ 31.1%로 취업목표를 설정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14.8%, 2학년 16.3%, 3학년 18.0%, 4학년 19.7%로 나타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학년의 경우도 약 20%의 학생들만이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목표 설정이 미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7>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setting a goal for employment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145 (14.8)	160 (16.3)	177 (18.0)	193 (19.7)	675 (68.8)	23.978	.000***
No	98 (10.0)	90 (9.2)	51 (5.2)	67 (6.8)	306 (31.2)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4.2.6 재학 중 일자리 탐색유무

재학 중 일자리 탐색유무를 살펴보면 ‘있다’ 53.9%, ‘없다’ 46.1%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있다’가 1학년 9.7%, 2학년 11.9%, 3학년 18.4%, 4학년 18.4%로 3학년부터 일자리를 탐색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seeking for employment in college education services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95 (9.7)	117 (11.9)	136 (13.8)	181 (18.4)	529 (53.9)	55.122	.000***
No	148 (15.1)	133 (13.5)	93 (9.5)	79 (8.0)	453 (46.1)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4.2.7 취업활동 참여여부

취업활동 참여유무를 살펴보면, ‘있다’ 40.4%, ‘없다’ 59.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있다’가 1학년 6.8%, 2학년 9.0%, 3학년 10.4%, 4학년 14.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활동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9>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participation in Employment activity for researching job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67 (6.8)	88 (9.0)	102 (10.4)	139 (14.2)	396 (40.4)	39.117	.000***
No	175 (17.8)	162 (16.5)	127 (12.9)	121 (12.3)	585 (59.6)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4.2.8 직업관련 교육/훈련경험 여부

직업관련 교육/훈련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있다’ 33.6%, ‘없다’ 66.4%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6.7%, 2학년 8.4%, 3학년 7.7%, 4학년 10.9%가 직업관련 교육/훈련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 학생들이 교육/훈련경험이 저학년들에 비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0>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education/training-related job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65 (6.7)	82 (8.4)	75 (7.7)	106 (10.9)	328 (33.6)	11.141	.011*
No	175 (17.9)	167 (17.1)	153 (15.7)	152 (15.6)	647 (66.4)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4.2.9 자격증 취득 유무

자격증 취득 유무를 살펴보면, ‘있다’ 48.4%, ‘없다’ 51.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8.5%, 2학년 10.5%, 3학년 12.6%, 4학년 16.8%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11> A difference between grade level for having an official license

(Unit: N, %)

Item	Freshman	Sophomore	Third grade	Fourth grade	Total	$\chi^2$	p-value
Yes	83 (8.5)	102 (10.5)	123 (12.6)	164 (16.8)	472 (48.4)	52.301	.000***
No	160 (16.4)	147 (15.1)	103 (10.6)	94 (9.6)	504 (51.6)		

Note: \*\*\* Level of significance 1%, \*\* Level of significance 5%

## 5. 결론

최근 취업경쟁으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경기침체, 일자리부족, 학력과잉, 채용패턴의 변화, 구인 및 구직 과정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취업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이 좋아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이 지역대학의 현실로서 학교와 교수, 지역사회가 나서 일자리 확보, 산학협력 강화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대학 사례를 통해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을 연구함으로써 대학의 취업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분석결과, 학생들은 복수진공보다 단수진공 선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재학 중 직장경험(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턴십 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직장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학연수 경험여부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나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속히 증가함을 볼 때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펙의 필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재학 중 진로설정 여부를 살펴보면, 재학 중에 진로설정을 한다는 비율은 63.9%로 낮게 나타났고 1, 2학년 중에 결정하는 비율은 30%정도로 학생들의 진로설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취업목표 설정여부에 있어서도 4학년의 경우도 약 20%의 학생들만이 취업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목표 설정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학 중 일자리 탐색유무와 취업활동 참여유무를 살펴보면, 각각 총53.9%와 40.4%로 나타나 학생들의 취업의지가 매우 낮게 보여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활동 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관련 교육/훈련경험과 자격증 취득 유무 등은 학생들이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훈련경험과 자격증 취득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취업의지는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취업에 대한 준비를 점점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년별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준비 활성화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의지 고취가 필요하다. 지방대학 학생들의 경우는 자기존중감이 매우 낮고, 몇 차례

지원 실패 후 좌절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매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취업에 애로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려면 자신이 어느 분야에 특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의지와 기업체 현장교육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교과목을 선정하고, 기업들의 의견이 교과 내용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이는 노동인력 질적 수준의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낮은 취업률의 근본 원인은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노동인력 질적 수준의 수요·공급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동기 부여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점차 사회에 만연했던 중소기업 경시 풍조도 극복되고, 노동인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으로 유도하여 대학생의 고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어학연수 기회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괜찮은 일자리’로의 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서 실력에 대한 ‘물리적 증거’인 자격증 취득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1인 1자격증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자격증 취득개수에 따른 장학금 지급, 그리고 각 학과(진공)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졸업요건에 반영한다든지 하여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요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고 어학실력 증진을 위해 재학생들의 어학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대학의 경우, 기업환경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탐색하여 사업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배양하여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창업준비특강 등 창업관련 교과목개설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강을 위하여 기초교양교수를 중심으로 한 기초학력 증진 교과목 운영이 필요하며, 물리, 수학, 국어 등 각 전공별 기초과목에 대한 보충을 통하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통해 취업역량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실업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청년실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자가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콜센터나 홈페이지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실업자, 기업, 유관기관 단체 등 다양한 대상별로 체계화된 홍보 전략이

수립,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대상이 지방대학 중 한 정된 C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 행동에 대한 연구이므로 지역대학들의 낮은 청년실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업률 향상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당국과 기업들의 취업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Dae-Bong Gwon & Jae-Sik Jeon, "Status of unemployed young people who graduate college and the way of solution", Ceo Report, Gyeonggi Research Institute, Aug. 2010.
- [2] Jae-Ho Geum, "Who Is the Victim?: Deterioration of young people employment Crisis", Monthly Labor Review, Korea Labor Institute, pp. 17-38. 2012.
- [3] Mi-Young Ko & Chul Jeong, "Tourism Curriculum Improvement for Competence Development of Tourism Human Resource",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 25, no. 2, pp. 111-127, 2013.
- [4] Jong-Sung Kim & Byoung-Hoon Lee & Jae-youl Shin, "Job Seeking Method and Overeducation of Young People",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vol. 12, no. 2, pp. 51-73, 2012.
- [5] Yong-seong Kim, "Joblessness among the Highly Educated Youth in Korea: The Causes and Policy Implications",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ol. 34, no. 3, pp. 67-95, 2012.
- [6] Yong-seong Kim, "Ways to Activate Youth Employment: Focusing on Government-Funded Job Programs and Promotion of Entrepreneurship", KDI Focus, vol. 35, pp. 1-6. 2014.
- [7] Ho-Won Kim & Jong-Gu Lee & Jae-Choon Lee, "A Study on the Competency Evaluation for Employment Support of the University in Korea",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4, no. 5, pp.2888-2911, 2011a.
- [8] Ho-Won Kim & Jong-Gu Lee & Jae-Choon Lee, "A Study on the Indicators Development of Competency Evaluation for Employment Support of the University in Korea",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4, no. 1, pp. 607-625. 2011b.
- [9] Sung-Jae Park & Jung-Ho Ban, "Effects of Pre-Employment Efforts of the College Graduate Youth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29, no. 3, pp. 29-50, 2006.
- [10] Jae-Myung Shim, "University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and Leisure Motivation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 Motivation Profiles and Affect of Motivation",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 28, no. 1, pp. 51-82. 2016.
- [11] Ki-Joon You & Young-Hee Choi, "The Study on the Value Perception of Internship Practice and Satisfaction Influences on Deciding on a Career for Employment -With Emphasis on Tourism Related Departments Students of University", Journal of Tourism Studies vol. 25, no. 2, pp. 27-55, 2013.
- [12] Young-Min Lee & Soo-Young Lee & Jung -Youn LIM, "An Analysis of Art, Music, Sports and Dance Graduates' School-to-Work Transition Preparation and Employment Outcomes", Kwangwon University Social Science Research, vol. 52, no. 1, pp. 1-28, 2013.
- [13] Sung-Goo Lee & Je-Kyung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3, pp. 1-25. 2008.
- [14] Young-Sub Choi, "An Analysis on the Structural Causes about Young People Unemployment Problem and Long-term Policy Aspect", KIET Industrial Economic Review, pp. 107-122. 2003
- [15] Jeju Tourism Organization. "Jeju Tourism Market Trends Analysis Report", vol. 01. 2015
- [16] Jeju Tourism Organization. "2014 Survey for Tourists Visiting Jeju", 2015
- [17]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ttp://www.moel.go.kr/>, 2015
- [1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http://www.tour.go.kr/>, 2015
- [19] The Korea Economic Daily, "Campus Job & Joy" 2014.
- [20] Daily Unn, "Hollow Gangjeong University Employment Programs", 2014.
- [21] Becker, G. S.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 [22] In-Ho Jung, Byung-Chul Lim, "Student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entering on students studying Dental Technology Daegu·Gyeongbuk are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3, pp. 13-19, 2012.
- [23] Sook-Jeong Lee, Ye Jong Lee,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3, No. 2, pp. 27-32, 2012.

지 계 웅(Ji, Ke yung)



- 2002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관광학 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호텔경영, 의료관광
- E-Mail : wlrdnd@cku.ac.kr

한 진 영(Han, Jin Young)



- 2007년 8월 :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호텔관광경영학 박사)
- 2009년 9월 ~ 현재 : 가톨릭관동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컨벤션, 호텔관광
- E-Mail : jyhan@cku.ac.kr